



2021년 8월 8일(제1047호) 연중 제19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1독서로 읽은 열왕기 상권의 말씀은 카르멜산에서 내려와 호렘산으로 향해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엘리야는 카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와 대결함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열왕 18,38) 하지만 엘리야는 카르멜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카르멜산에서 내려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카르멜산에서 내려와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자기 삶의 정점에서 밀바닥으로 내려오는 여정, 곧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였던 카르멜산에서 광야라는 낯선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선 엘리야는 죽기를 간청하고 잠들기 바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잠들어 있을 때마다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일으키시고 양식을 마련해 주시어 호렘으로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은 엘리야는 호렘으로 나아가 강한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난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열왕 19,9-18)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여정이 엘리야의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일으키신 표징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요한 6,1)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만나면서 체험하였던 예수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드러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6,35)

하지만 사람들은 새롭게 드러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왔던 예수님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요한 6,41)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요한 6,42) 사람들은 참 생명이신 분을 제대로 알아 뵙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새롭게 드러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 보여 주시면서 당신께 머물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도 호렘을 향해 나아갔던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나선 사람들처럼, 길을 나서 새롭게 드러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얕은 지식,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고 여기는 우리의 교만이 새로이 드러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어떠한지 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었나요? 여전히 자신에게 익숙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늘 새롭게 당신을 만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김승태(미미야) 신부  
명필(15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본포송

1열왕 19,4-8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에페 4,30-5,2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요한 6,41-51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복 음  
영 성 제 송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 이홉 번째 시한

만주인들은 민족 문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로 쓰여진 책들은 모두 북경에 설립된 특별 법정에서 중국 서적들을 번역한 것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고유한 문자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글자들은 몽고인들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아주 적어서 백년 후에는 그 말이 책 속에서 과거의 추억으로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나라 말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것은 아마 수 세기 전에 조선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만주인 나라 저쪽까지 국경을 넓혔을 때 두 나라가 같은 백성이 사는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만주에는 조선인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혈통을 보존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 조선의 무기와 돈, 그릇과 서적들이 들어 있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우긴’과 ‘유피타체’(어피달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유피타체’들이 어피(魚皮)로 만든 옷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송화강 강변과 그 지류들 강가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숲 속에서 유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잡이와 사냥에 종사하며 잡은 짐승의 가죽과 잡은 물고기를 중국인들에게 팝니다. 거래는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물고기가 얼어 있어서 2천 리 이상 먼 시장에까지 공급됩니다. 대신 그들은 옷감, 쌀, 좁쌀에서 뽑아낸 생명수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들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중국 황제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그네들 땅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들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불결하다고 말합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비방할 수 있으려면 그들 자신이 먼저 속옷을 좀더 자주 갈아입고 또 그들을 뜯어먹는 기생충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유피타체’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방 저쪽, 그리고 아시아의 러시아령 국경에까지 또 다른 유목민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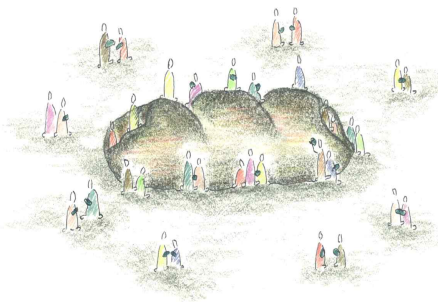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행,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목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나뉘 행복한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잘 교육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나뉘  
행복한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루어지길.

상화이야기

광야에서의 엘리야



이제벨 왕비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는 광야로 피신하고, 죽기를 간청하다 싸리나무 아래서 잠이 든다. 이 그림은 오늘 1독서에 나오는 내용을 충실히 묘사한 작품으로, 천사는 마치 방금 도착한 듯, 왼쪽 다리의 옷자락이 아직 펄럭이고 있다.

왼쪽에 석양처럼 보이는 오렌지색 빛이 천사의 날개를 통과하여 엘리야와 그림의 오른쪽 부분을 비추는데, 이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프레데릭 레이트, 1877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w210xh234cm  
리버풀 미술관, 영국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싸리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싸리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 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1열왕 19,4-6)

김은혜(엘리야빛)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일중 제19주일: 제주해군 인영근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8월 10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별 화상회의  
    때: 8월 12일(목) 16:00, 육·국직

◆ '신부(神父)의 책장(시즌2)' 인내

- 네이버 오디오클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중" - "이렇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